

폴란드의 투자환경 전망 (2005-2006)

1. 정치 전망

- 시민강령(PO, 중도우파) 및 법과정의당(PiS, 우파)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오는 9월 25일 의회선거에서 두개의 우파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.
- 두 정당 중 누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다수당에서 차기 총리를 지명하게 되고, 경제 및 사회문제에 있어 두 정당 간 정책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임. 특히, 법과정의당은 시민강령보다 더욱 통제적인 경제정책 수단을 채택(민영화, 세금삭감 또는 정부지출 제한조치 등에 대해 낮은 정책비중)할 것으로 전망됨.

※ 두 정당간의 세제정책 비교

- 시민강령: 15% 단일세율,
- 법과정의당: 개인소득세 → 최고 28%, 법인세 → 19%, 부가세 → 18%

- 한편, Cimoszewicz가 민주좌파연합(SLD)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판도가 변하고, 의회선거에서 민주좌파연합이 선전할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. 민주좌파연합이 선전할 경우 시민강령 및 법과정의당 연합이 차기 의회선거에서 과반수를 점하기 위해서는 제3의 파트너가 필요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, 이에 폴란드농민당(PSL)이 제3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.

- 향후 자유경제정책을 표방하는 시민강령과 보다 적극적인 정부개입과 통제 정책을 추구하는 법과정의당간의 정책차이는 신정부의 효율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- 법과정의당이 정부 내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등장 시, 차기 행정부는 권좌로부터의 이전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제거, 범죄와 부패 소탕 등의 주요 과제들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.
- 두 정당은 공동프로그램에 대한 타협을 위해 8월말부터 회담을 추진할 예정임.

2. 국제 관계

- 프랑스, 네덜란드에서의 EU헌법 조약 비준 부결 여파로 폴란드는 동 EU헌법조약 비준에 대한 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함.
- 신 행정부는 2007-13 EU 예산안 및 공동농업정책(CAP)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간의 논쟁(영국에 대한 EU예산 환급금 문제 등)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임.
 - 폴란드의 정책우선순위는 CAP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고수하되, 신 예산안의 EU구조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증액시키는 것으로 분석됨.
- 폴란드는 2005년 말까지 이라크로부터 군병력을 철수할 전망으로 알카에다 관련 집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, 실제 폴란드 내에서의 테러위험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됨.

3. 경제 정책

- 의회선거와 관계없이 재정수지 개선이 경제의 가장 큰 해결과제

- 이는 '유럽경제화폐통합'(EMU)에의 가입(2009년 euro zone가입 포함 GDP의 60% 이내로 공적채무를 유지(폴란드 헌법에 명시됨)하는 데에도 필수적임.

- 민영화정책에 있어, 벨카 정부는 지난 6월, Lotos Oil 회사의 소수 지분 매각에 성공(PGNiG 가스회사의 경우는 연기)함.

- ※ 민영화에 있어 법과정의당은 시민강령에 비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.

-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2005년 350억 PLN(GDP의 약 3.7%)에서 2006년 300억 PLN(GDP의 약 3%)으로 점차 축소할 계획임.

- 2004년 Zloty화의 강세로 대외채무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공적채무의 증가세가 완화되는 추세임(2004년 말 현재 공적채무는 GDP의 43.6%수준). 2004년 재정적자규모는 415억 PLN(약 113억 달러, GDP의 4.7%)를 기록함.

- 시민강령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(15%단일세율 도입 등을 포함한 세제개혁) 내년도 정부지출은 그간 연기되어온 물가지수 연동에 의한 각종 사회복지관련 지출로 인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.

- 한편, 연립정부 파트너인 법과정의당은 시민강령과는 달리 급진적인 세제개혁 및 정부지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서 시민강령의 세제정책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임.

- 향후 이자율 추가인하 가능성은 있으나 2005년 6월 경제활동지표의 호전과 차기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추가 이자율 인하폭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
- 지난 7월말, 통화정책위원회(MPC)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이자율 25bp 인하조치를 단행함(현재 기준금리 4.75%, 통화정책 '완화').

- 2006년에는 통화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에 있어 환율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으로, 통화정책 전망은 다소 불투명함.

※ 2007년 초 Zloty화의 EU 환율메카니즘(ERM2) 가입이 예상되고 있음.

4. 경제 전망

- 폴란드의 주요 수출시장인 서유럽국가의 고유가 부담 등으로 인한 GDP 성장률 둔화(2004년 1.9% → 2005년 1.2%) 및 EU 헌법조약 비준부결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전망됨.
- 국내수요 및 수출입 증가 둔화로 인해 2005년 중 실질 GDP 증가율은 3.8%(2004년 5.4%, 2006년 4.3%)로 예상됨.
 - Zloty화 강세 및 폴란드의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둔화에도 불구하고, 높은 생산성 증가에 힘입어 수출은 2005년 7.7%, 2006년 8.7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- 물가상승률은 2005년, 2006년 각각 2.1%, 1.8%로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됨.
 - 2004년 말 4.4%, 2005. 6월 1.4%였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실업률(급격한 임금상승 제약)과 Zloty화 강세 등으로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.
- 환율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유로화 약세로 인해 Zloty화는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(2005년 평균환율 1€ = 4.06PLN).
 - 장기적으로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환율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. 정부가 재정적자(euro zone 가입요건은 GDP의 3%) 규모를 줄이기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한다면 Zloty화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-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04년 GDP의 1.5%에서 2005년 GDP의 0.5%로 크게 하락(2006년에도 동일한 수준)할 것으로 전망됨.

- 2006년 경상수지의 부정적 요인 : 투자수요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, 높은 해외 이자율부담 및 기업의 지속적인 대외채무 증가, 외투기업의 이윤 송금 등
- 2006년 경상수지의 긍정적 요인 :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 증가, EU로부터의 자본유입 증가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등

주요경제지표

단위: 억 달러, %

구 분		2003	2004	2005	2006
실질 GDP증가율		3.8	5.4	3.8	4.3
평균 실업률		19.9	19.6	18.2	17.5
평균 물가상승률 (연 말)		0.7 (1.7)	3.5 (4.4)	2.1 (1.3)	1.8 (2.0)
상 품 수 출		610	816	927	1,049
상 품 수 입		667	872	980	1,110
경상수지(억불) (GDP 대비 %)		-46 (-2.2)	-36 (-1.5)	-25 (-0.9)	-28 (-0.9)
대 외 채 무 (연말)		953	1,082	1,106	1,186
환 율 (평균)	PLN : US\$	3.89	3.65	3.31	3.18
	PLN : €	4.40	4.55	4.06	4.01

※ 2003~04년 실적치, 2005~06년 예측치, 2004년 대외채무(연말)는 추정치
 자료: EIU Country Report, PNB 등.

<자료제공: 폴란드주재원>

전문연구원 최 은 경 (☎3779-6665)
 E-mail : ericachoi@koreaexim.go.kr